

##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 분만·치료·발달·양육 분야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12.3.) -

정부는 12월 3일(화) 14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된 다섯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과, 신생아과 의료진 등 전문가 간담회, 부모 간담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인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증가 중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며, 양육자는 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는다.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최초의 이른둥이 특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 출생과 발달 상태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른둥이는 장기간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하므로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수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우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수혜기간을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일찍 출생한 만큼 더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모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중증(3차) - 권역(2차) - 지역(1차)으로 이어지는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는 산과 기능을 강화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복합중증산모, 초극소이른둥이 등 최중증 치료를 수행하는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도 2개소

신설한다. 모자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의뢰·회송을 지원하고 병상 현황 등을 공유하는 이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이송전담팀도 운영하여 24시간 응급분만에 대응하도록 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운영에 대한 정책수가를 보상한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등 소아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최대 1,000%) 항목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원 한도도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까지 최대 2배 인상한다.

이른둥이의 영유아기 발달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이른둥이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이른둥이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6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을 현재 39개소에서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하며, 이른둥이 맞춤 치료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상병, 수혜기간, 수가기준도 개선한다. 나아가 이른둥이 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영유아 이후의 발달·치료정보를 포괄하는 장기건강통계도 생산하여 맞춤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일과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양육·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이른둥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의 150%)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용기간도 최대 20일(이른둥이+쌍태아 이상) 연장한다. 이른둥이에 필요한 연령별 검사·검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하여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이른둥이 맞춤 지원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카드뉴스

<별첨>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사무관	임성필 (044-202-3367)
담당 부서 <모자의료센터, 이송·진료협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이정신 (044-202-2535)
담당 부서 <의료비지원, 지속관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유능재 (044-202-3393)
		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4-202-3397)
담당 부서 <집중치료보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370)
		담당자	사무관	이성규 (044-202-2372)
담당 부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장	임현규 (044-202-3190)
		담당자	서기관	석상준 (044-202-3191)
담당 부서 <의료연구 및 건강통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	책임자	과장	임종연 (043-719-6710)
		담당자	연구사	송보미 (043-719-6717)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 이른둥이란?

- 1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 2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2023년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율은 약 12.2%(2.8만명)입니다.



- 1 결혼 및 출산연령 상승
- 2 난임 시술 증가로 인한 다태아 비중 증가로 이른둥이 비중도 증가 추세

2 / 8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 계기는?

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은 일찍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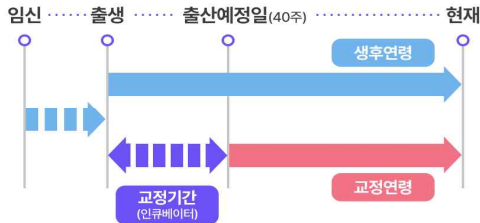
3 / 8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이른 출생과 출생초기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교정연령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4 / 8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현행

생후 60개월

개선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24개월

개선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5 / 8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현행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개선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2 출산 전후 휴가 확대

90일

100일 (+10일)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생후 36개월

생후 40개월 (+4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6 / 8

보건복지부

2024.12.2 제작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현행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개선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현행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개선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7 / 8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 4️⃣ 육아·돌봄 지원



1 / 7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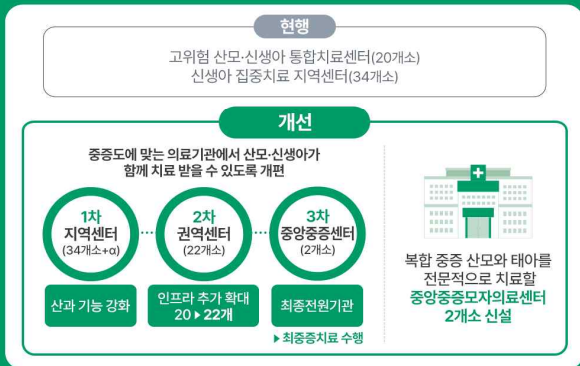
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 / 7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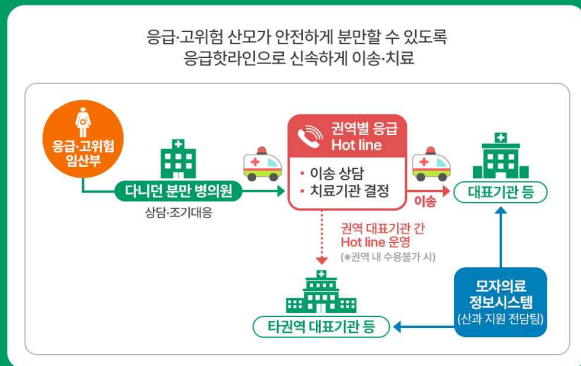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3 / 7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4 / 7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신생아·산모 집중치료 보상 강화



5 / 7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6 / 7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 ①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② 신생아기 치료 지원
- ③ 영유아기 발달 지원
- ④ 육아·돌봄 지원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③ 영유아기 발달 지원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재활치료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③ 영유아기 발달 지원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 전국화

현행	개선
6개 지역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만 서비스 제공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이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검사·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③ 영유아기 발달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p>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p>	<p>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꾸쳐 지급</p>
--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③ 영유아기 발달 지원

##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 (인프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 10월	2025년	2026년	2027년
39개소	50개소	65개소	80개소

- (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 4️⃣ 육아·돌봄 지원



1 / 6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4 육아·돌봄 지원



일·치료·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양육 가족에게 건강·돌봄서비스를 맞춤 지원하고,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 / 6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4 육아·돌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

	현행	개선
<b>소득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li> <li>• (예외) 기준 + 이른둥이 가구</li> </ul>
<b>유효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가구) 생후 60일</li> <li>•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구) 생후 60일</li> <li>•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li> </ul>
<b>이용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5일) 단태아(첫째)</li> <li>•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li> <li>• (15~40일) 삼태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5일) 단태아(첫째)</li> <li>• (10~20일) 기준 + 이른둥이 단태아</li> <li>• (15~40일) 기준 + 이른둥이 쌍태아</li> </ul>

3 / 6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4 육아·돌봄 지원

##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현행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개선

1년 6개월 (+6개월)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4 / 6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4 육아·돌봄 지원

##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 이른둥이 가족,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
- (주요 제공정보) 퇴원 후 필수 검진,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온라인북 포함) 제작·배포

5 / 6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6 / 6